

나주축협 경매 소 부산물 특혜 공급 논란

특정인을 가격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수년동안 독점 판매 수수료 낮추고 세척장 운영권도 넘겨... 농민들 "진상조사해야"

나주축협공판장과 나주축협이 경매로 나온 소 부산물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으로 특정인을 선정하고 부산물을 독점 공급하는가 하면, 공판장 내 소 세척장 운영까지 독점도록 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나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판장측이 부산물 가격을 심의·결정하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바람에 구입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자 역할까지 하는 행태가 벌어지면서 축산 농민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공판장과 축협의 특혜 제공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칫 조합원들에게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농협중앙회 나주축산물공판장과 나주축협에 따르면 나주축협은 소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고기 내장, 소머리·우족·집뼈 등)을 A씨에게 수년 간 독점 판매해왔다.

축협은 그나마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A씨에게 독점 판매하다 반발이 일자 사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진행, 가장 높은 판매 수수료를 써낸 A씨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해놓고 다시 수수료를 낮추는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 축산물 공판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하루 소 140마리가 도축되는 대표적 축산시설로, 지역 축산농가들이 경매를 의뢰한 소만 한 해 9160마리에 달한다.

축협은 공판장 건립(1990년)으로 문을 닫게 된 기존 도축장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공판장의 부산물 판매권을 양도받아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A씨에게 독점 공급했다.

축협은 또 양도받은 공판장 내 부산물 세척장 운영도 A씨가 맡도록 했다. 공판장도 세척장 운영자라는 이유로 축협에 부산물을 넘기는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A씨를 위촉, 판매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축협에서 부산물을 사는 구입자가 판매 가격을 미리 알고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축산물 경매를 의뢰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부산물을 사들이는 사업자가 가격심의위원회나 판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점 공급하던 때와 경쟁 입찰 때의 가격 차이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공판장은 울들어 나주축협

으로 넘겼던 부산물 판매권 일부(30%)를 되돌려받아 상반기 물량을 공개 입찰한 바 있다.

공판장측이 입찰로 진행한 올 9월 부산물 판매가격은 ▲1지1부(내장) 11만원 ▲우두 6만원 ▲우족 4만4000원 ▲우지방 3만8000원 선 등이다. 기존 공판장 가격심의위원회의 '부산물별 판매 가격'(2015년 9월 10일 도축물량)이 ▲1지1부(내장) 3만5000원 ▲우두 9000원 ▲우족 1만1000원 ▲우지방 6110원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물 경매를 의뢰한 농민들은 "부산물가격심의위원회가 경매를 맡긴 농민들 재산인 부산물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영주 나주축산물공판장은 "공판장 가격심의위원회의 가격과 경쟁 입찰로 이뤄진 판매가 차이는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져 가격이 오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쟁이 이뤄질 만큼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공판장·축협을 상대로 독점 판매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형편이다.

또 입찰이나 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나주축협 김기동 조합장은 "누구에게 수의계약을 주거나 수수료를 인하여 주는 것은 축협 소관으로 자제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장장은 "지난해 정장에 취임해 14년간 단합해 온 중도매인들을 바꿨다"며 "공판장이 혁신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축협측에 넘겨졌던 부산물 판매권도 되돌려받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세워진 나주축협공판장 전경. 하루에 소 140마리가 도축되는 대표적 축산시설이다.



도시텃밭서 수확의 기쁨 누리요

빛가람동 지역민 200여명 '팍파티'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일대 텃밭 도시텃밭에서 지역민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팍파티(Farm-Party)를 열었다. <사진> 팍파티는 올 한 해 텃밭 농사를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고 텃밭을 가꾸는 도시 텃밭지기들간 소통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김장 체험을 비롯, 화분·허수아비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텃밭지기들은 직접 재배한 배추와 텃밭채소를 활용해 김장 체험에 참여하는 등 수확의 기쁨을 배로 누렸

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원텃밭은 작물 재배와 수확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웃 간 정보 제공의 장이자 원도심과 혁신도시민과 간의 상생 넘치는 소통 창구"라며 "가꾸는 재미,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민의 정서적 공간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을 통한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내 4개소 공원텃밭(7696㎡)을 조성, 운영해왔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시민과 소통 위한 '이그나이트 나주' 열린다

다음달 6일 시청 대회의실

주제 발표자·청중단 모집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이그나이트 나주'(ignite naju)가 열린다.

나주시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그나이트 나주'에 참가할 주제 발표자 10명과 시민 청중단 110명을 모집한다.

발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나주시 시민소통실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시민청중단으로 참여하고 싶은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시민소통실로 신청하면 된다.

'불이 붙다. 점화하다'는 뜻의 '이그나이트'는 '공유'를 가치로 내걸고 행하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법'으로, 발제자가 5분이 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한 발표 슬라

이드 20장을 15초씩 자동으로 넘기며 주제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주시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서로의 생각을 발표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다문화부부 6쌍 특별한 결혼식

나주시 다문화부부 6쌍이 최근 나주향교 명륜당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혼례식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들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전통 혼례식을 한 주민은 "아내가 필리핀에서 시집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혼례를 올리게 되어 아내가 무척 행복해한다"고 좋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늘 혼례식은 결혼 이민자 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을 돕고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나주시민으로써 긍지를 갖고 신랑, 신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